10.15686/fkl.2025..64.256

최승자 시에 나타난 오물의 의미와 침윤성(浸潤性) 존재론

유가은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이경수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차

1 서론
2 배설물적 존재와 오염이라는 접촉
3 병원체적 신체와 감염의 생산성
4 세포 단위의 재생산과 여성적 신체의 증식
5 결론

이 논문은 2023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승자의 시에 나타난 오물의 의미를 재독해하고 오물이 시적 주체의 존재론을 보여준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최승자의 시적 자아는 쓰레기, 배설물, 병원체 등을 뒤집어쓰거나 자신을 오물 그 자체라고 표현한다. 오물은 최승자의 시에서 존재의 끝없는 부정성과 퇴락을 보여주는 방법일 뿐 아니라, 침윤의 방식으로 타자에게 관여하는 존재론을 수행하는 대상이다.

쓰레기나 배설물은 대상을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타자에게 침윤하고, 병원균은 상대를 감염시켜 병들게 하는 방식으로 타자에게 침윤한다. 이때 오물은 시적 자아의 삶에 대한 비유이기보다는 비가시적 단위에서 타자에게 확산하는 존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승자의 시적 자아가 단순히 극단적인 죽음을 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생의 의지를 표출한다는 방식의 독해를 넘어서, 오물 자체가 연결과 생성의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방식으로 최승자의 1980년대, 1990년대 시를 읽는 방식을 재편하고자 한다. 그간 최승자의 시는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1980년대의 시편에 비해 1990년대의 시편은 시적 긴장감이 떨어졌다거나 신비 세계로 이행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물이 애초부터 확산성이 있는 존재이자 관계적인 존재라고 본다면, 1990년대의 시편에서 보여주는 삶과 죽음에 대한 순환적 인식 역시 침윤적 존재론으로 통합적 독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국문핵심어: 최승자, 여성시, 오물, 존재, 존재론, 신유물론, 도나 해러웨이, 생명, 침윤

1 서론

최승자는 1980년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인 중 하나로 호명되지만, 시인의 시가 이해되는 방향은 지금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자아를 향한 극단적인 부정성을 드러낸다는 것이 최승자의 시를 평가하는 지배적인 관점이었다. 조연정은 여성의 목소리가 항상 광기와 연결되어 이해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면서, 최

승자의 시가 독신자 여성의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독해되어야 한다고 요청한다.[1] 최승자의 시를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 논문은 최승자의 시에 나타난 오물의 의미와 시적 자아의 존재 양태를 부정 또는 긍정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최승자에 관한 당대비평은 '방법적 부정'이 자주 논점이 되곤 했다. 김치수는 1981년 『이 시대의 사랑』의 해설에서 최승자의 언어는 사랑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후 1984년 『즐거운 일기』의 해설에서 정과리는 최승자의 시를 "방법적 비극"으로, 1989년 『기억의 집』에서 진형준은 "방법적 부정"으로 해설한다. 최승자의 시적 자아가 보이는 부정성은 하이데거식의 실존[2]이나 여성적 글쓰기[3], 멜랑콜리[4]와 같은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최승자의 시적 자아는 형이상학을 견제하면서 생생하게 살아 있는 신체를 강조하는 듯하다가도, 온갖 오욕을 뒤집어쓰고 실존과 죽음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듯해 보이기도 한다. 시인의 시를 독해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1994년 엄경희는 최승자의 「Y를 위하여」를 수용미학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여성시에 흔히 요구되는 친숙한 기대지평을 배반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5] 허주영은 텍스트 안에서 화자의 성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에도 여성 작가의 작품이 생물학

---

1 조연정, 「최승자 시에 나타난 독신자 여성 삶의 재현 양상」, 『여성 시학 1980~1990』, 문학과지성사, 2021, 157-175쪽.

2 유준, 「사랑의 형이상학에 관한 연구-오정희와 최승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신영연, 「최승자 시의 실존의식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3 윤초롬, 「최승자 초기시에 나타난 물 이미지 연구-멜랑콜리적 주체와 아브젝트적 상상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정슬아, 「최승자 시에 나타난 주체의 변모 양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4 박소영, 「최승자 시의 멜랑콜리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영희, 「여성의 멜랑콜리 시 의식이 구현하는 언술구조 연구-김승희, 최승자,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혜순, 「1980년대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멜랑콜리의 정치성 연구-이성복, 김혜순, 최승자의 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5 엄경희, 「여성시에 대한 기대지평의 전환-최승자 시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13집, 이화어문학회, 1994, 571-578쪽.

적 성별에 갇혀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최승자의 시를 예로 들었다.[6] 성현아·이경수는 최승자 시에 나타난 주체의 이중적인 태도는 위악이나 조롱이 아닌, 여성 주체라면 삶 속에서 언제든 느껴볼 수 있는 양가감정을 반영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7] 황선희는 최승자의 아이러니가 정치적인 실천의 일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8] 최승자의 시를 이분법적 관점에서 기술하지 않고자 하는 시도들이 몇 차례 이루어진 것이다.

최승자는 배설물, 질병, 균, 쓰레기, 피 등을 여러 차례 사용하여 시를 작성했다. 오물은 자아가 극단적으로 자신의 부정성을 전달하기 위한 소재로 이해되어 왔다. 김건형은 오물이 비천함과 충격적 효과를 가져다주면서 상징계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지시한다고 분석한다.[9] 정슬아는 최승자의 시에 나타난 오물은 비체로서, 젠더 이분법에 포섭되지 않는 신체로서 저항성을 내포한다고 보았다.[10] 조성아는 병균, 곰팡이와 같은 모습은 세계와 이질적인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한다.[11] 최승자의 시에 나타난 오물은 시적 자아의 죽음 의식을 해명하기 위한 기제로 받아들여져 왔다. 오물이 긍정성과 부정성 가운데 어떤 것을 은유 또는 상징할 것이냐를 파악하기보다는 오물 자체로 세계와 접하는 존재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최승자 시에서 타자에게 침윤하는 존재성을 오물이 시행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여기서 오물은 버려지고, 질병을 퍼트리고,

---

6 허주영, 「생물학적 성별에서 벗어나기」, 『상허학보』 제55집, 상허학회, 2019, 221-261쪽.

7 성현아·이경수, 「최승자 시에 나타난 필수양가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65호, 한국시학회, 2021, 131-157쪽.

8 황선희, 「한국 현대 여성시의 아이러니 연구-김승희, 김혜순, 최승자의 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84-186쪽.

9 김건형, 「최승자 시에 나타난 비천한 주체의 변모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8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57쪽.

10 정슬아, 「여성시와 여성혐오(misogyny)-최승자와 이연주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42집, 돈암어문학회, 2022, 237-240쪽.

11 조성아, 「최승자 시세계의 시간의식 연구-기억과 죽음 이미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56-57쪽.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실체적인 물질로써 '비체(abjection)'와는 구분된다. 이 논문에서는 배설물, 질병, 병균, 쓰레기, 피, 시체[12]를 지저분하고 더러운 물질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오물의 범주에 넣는다.

침윤(浸潤)은 사전적으로는 수분 따위가 스며들어 번진다는 의미이고, 의학적으로는 염증이나 종양이 인접 조직이나 세포에 침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승자의 시에서 자아는 배설물, 쓰레기 등 오물의 형태를 하고 타자에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해러웨이는 죽음을 단지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며, 삶과 죽음을 통합하여 사유할 수 있게 하는 존재론을 제시하였다. 인간과 자연을 막론하고 존재는 모두가 퇴비와 같이 얽히고 생성과 파괴에 관여한다.[13] 삶과 죽음은 서로 불가침의 영역으로 이분되지 않고, 한 대상 안에 언제나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최승자의 시에서 오물은 추상적 존재가 아닌 실재하는 물질로서 오염과 감염이라는 방식으로 확산한다. 침윤은 오물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행위로서, 오염 물질이 대상에게 점점 스며들어 감으로써 병원체를 옮기고 대상이 병을 앓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오염의 상상력은 나아가 1990년대 시에서 세포가 분열하여 생명체를 이루며 지속적인 생성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과정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최승자의 시에서 그간 부정성의 표현으로 여겨져 왔던 요소들을 재검토하고 삶 또는 죽음의 한 갈래로 처리될 수 없는 오물의 존재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그동안 부정성을 비유하는 표현으로만 여겨져 온 똥, 토사물 등의 배설물이 오염이라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 접촉한다는 실마리를 제공함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시적 자아가 스스로를 균, 독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며 타자에게 병을 옮기는 방식으로 존재하며, 이때 죽음이 역설적으로 생산성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4장에서는 1990년대 시에 들어와

12 '피'는 기술 방식에 따라 성격을 달리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질병과 관련된 피나 외부로 흘러나온 피를 오물의 범위에 넣고 기술할 것이다. '시체'는 죽음을 개념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실재적인 신체가 버려져 있는 정황의 경우에만 포함하도록 한다.

13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마농지, 2020, 13-14쪽.

서 세포와 효모의 상상력이 발전하면서 신체가 죽음을 넘어 새로운 존재를 낳고 퍼뜨리게 되는 양상을 보면서, 그것이 최승자의 시가 자아내는 여성성의 특성임을 논의할 것이다. 최승자 시의 부정성은 극복의 대상이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타자에 대한 침윤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배설물적 존재와 오염이라는 접촉

1981년에 발간된『이 시대의 사랑』은 최승자의 첫 시집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1980년대 시사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은 앞으로 최승자가 선보일 자아의 특성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자 시사적으로는 정확하고 온전한 전통 서정의 자아에 종말을 선언하는 중요한 진술이었다. '나'라는 자아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면, 자아가 관측한 세계의 운행과 세계의 진실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승자의 시적 자아는 "나는너를모른다 나는너를모른다"(「이 시대의 사랑」)라는 반복적 진술을 통해 '너', 즉 타자와 타자로 구성되는 세계를 이성으로 이해하고자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일찌기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눈 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 주지 않았다
쥐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일찌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가

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너를모른다 나는너를모른다.
너당신그대, 행복
너, 당신, 그대, 사랑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일찌기 나는」(『이 시대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81.) 전문

'나'라는 존재는 "곰팡이", "오줌 자국",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와 같다. 화자는 이것을 명사형 종결 방식으로 나열한다. 곰팡이, 오줌, 구더기와 시체는 비유적으로 나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동일한 자리에 있다. 오물인 대상들은 실체적 현실로서 그 자리에 존재한다. 곰팡이는 음식과 같은 곳에 붙어서 더럽고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대상이고, 오줌은 배설물로 생명체가 남긴 더러운 찌꺼기이다. 시체는 죽은 지 오래되어 구더기에 뒤덮인 상태로, 상하고 더러우며 병을 옮길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이 "천년 전에 죽은 시체"이자 "아무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죽고 있는 신체는 더럽고 버려진 존재인 오물과 같은 특성을 보이게 된다. 제인 베넷은 배수관에 버려진 비닐장갑, 꽃가루, 쥐, 병마개와 같은 쓰레기에 주목하며 버려진 듯한 사물들이 생기를 존속하고 활동을 지속한다고 말한다.[14] 매립지에 있는 쓰레기조차도 생명이 중지된 것 같이 보이지만 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메탄가스를 생성하면서 외부와 간섭하는 자리를 포착한 것이다.

해러웨이는 인간성(humanities)이라는 단어에서 '인간(human)'이라는 부분을 부식토(humus)로 변주하여 현재 우리는 인간성보다는 부식토성(humusities)에 의해 살게 된다고 말한다.[15] 우리 몸은 닫힌계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많

14 제인 베넷, 문성재 역, 『생동하는 물질』, 현실문화, 2020, 41-46쪽.
15 도나 해러웨이, 앞의 책, 97쪽.

은 미생물과 세균, 바이러스가 거주하거나 잠시 들렀다가 가는 곳이기도 하며, 그것은 다른 생물체나 전 지구로 확장하면 더 분명해진다. 해러웨이에게 있어 삶은 퇴비 만들기의 과정[16]이고, 모든 인간이나 동식물, 자연이 여기에 참여한다. 쓰레기나 똥과 같은 존재 역시 퇴비로 세계를 구성하는데, 이는 최승자 시의 오물, 병, 죽음 등을 새롭게 독해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

문혜연은 이 시가 오줌과 구더기와 같은 오물을 통해 공포스러운 불멸 속에 '루머'로서 존재하는 삶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죽음보다 더한 부정성을 발견한다.[17] 한편 황선희는 「일찌기 나는」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언술에 뒤따르는 곰팡이나 오줌 자국, 시체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의 여지를 지니는 사물로서 생기를 보여준다며[18] 생성의 가능성을 짚는다. 최승자의 시에 있어서 오물은 종결이나 생성으로 고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두 가능성을 한 번에 가진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 주지 않았다",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라는 진술은 이제 존재의 끝 모를 퇴락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주체가 존재하는 양태가 된다. 죽은 다음 구더기에 몸을 내주며 썩어가는 시체, 벽과 오줌 자국, 마른 빵을 파먹는 곰팡이는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고 서로에게 확산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일반적으로는 살아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양태를 지시하게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기억이 있을 뿐이다. 머릿속에서 살아 있는 세포처럼 움직이면서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미세한 병균들, 기억의 병균들이 썩어가는 시간의 분해물질과 뒤엉

16 위의 책, 60쪽.

17 문혜연, 「최승자 초기 시의 죽음의식 연구-『이 시대의 사랑』을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제57호, 국제언어문학회, 2024, 155-156쪽.

18 황선희, 「포스트휴먼 시대 비인간 담론으로 다시 읽는 여성시-김승희·김혜순·최승자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77호, 한국시학회, 2024, 64-65쪽.

켜 악취를 뿜고 있을 뿐이다.[19]

1981년 작성했다고 알려진 최승자의 산문 「산다는 이 일」에서 시인은 불안이 자신을 엄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한다. 불안이 엄습할 때 시인은 "죽는 수도 있어", "죽임을 당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라며 죽음을 생각하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시인은 이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살아 있는 세포처럼 움직이면서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미세한 병균"이고 기억은 "병균들이 썩어가는 시간의 분해물질과 뒤엉켜 악취를 뿜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최승자에게 병균의 확산과 기억과 시간의 오물적 특성이 내재함을 보여준다. 기억과 시간은 뒤엉켜 "악취를 뿜"는 오물이 된다.

최승자의 시에 등장하는 오물은 버려져서 쓸모를 잃었거나 죽어서 종결된 대상이 아니다. 오물은 퇴비가 존재하는 방식처럼 서로를 오염시키면서 뒤얽히는 존재가 된다. 최승자의 시적 자아가 직접 자신이 오물임을 이야기하거나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면서 불결함의 상태에 스스로 남아 있고자 할 때, 이것은 자기 존재를 삭제하려는 욕망이기보다는 끊임없이 근처를 오염시키면서 존재하는 방식 자체를 인식한 결과이다.

정과리는 최승자가 똥과 오물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에 주목한 바 있다. 「돌아와 나는 詩를 쓰고」(『기억의 집』)에서 "슬픔은 반짝인다/하늘의 별처럼/地上의 똥처럼."이라는 구절은 별과 똥이 슬픔을 매개로 동등하게 참여하면서 비애와 생기의 복합체로 재탄생한다고 설명한다.[20] '똥'이 곧 슬픔이고, 슬픔은 최승자가 내세우는 근본 감정이자 존재의 동력원이 되는 과정 속에서, 오물은 결국 시적 주체의 존재 양태를 지시한다. 시인이 「未忘 혹은 備忘 2」(『내 무덤, 푸르고』)에서 "목숨은 처음부터 오물이었다"라고 한 표현도 "살아 있다"는 사건 자체가 썩고, 버려지고, 더러움을 남에게 옮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

19 최승자, 「산다는 이 일」,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난다, 2021, 20-24쪽.

20 정과리, 「모독의 사랑 방정식」, 『1980년대의 북극꽃들아, 뿔고둥을 불어라』, 문학과지성사, 2014, 236-237쪽.

『기억의 집』에서는 슬픔과 추억, 기억이 '똥'이나 '토사물', 썩은 무언가와 같은 오물로 비유된다. 「우일 풍경」에서는 "기억과 추억의 토사물"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억과 추억이 토사물을 남긴다고 이야기하고, 「자칭 시」에서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썩은 즙"이라고 말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이후의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 무덤, 푸르고』의 「未忘 혹은 備忘 12」에서 화자는 자신의 생존이 '먼지' 또는 '오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시적 자아는 삶 속에서 기억과 감정을 오물의 형태로, 그리고 오염이라는 방식으로 세계에 확산시킨다.

그대의, 그대들의 즐거움,
아무리 용수철처럼 튀어올라도
난 속지 않아, 속지 못해.
(행복하게 속고 싶어)

아직도 곧잘
희망에 푸릇푸릇 데쳐지고
절망에 달달 볶여지고
자포자기에 푹푹 고아지는
나는 수억 년 전부터의 원시적 아메바.

나는 슬픔의 소화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지.
그래서 슬픔을 먹는 대로
곧바로 토해버린다.
무의미한 끝없는 자동반복적 토악질.
-「토악질」(『기억의 집』, 문학과지성사, 1989.) 전문

이 시에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토'를 통해서 나온다는 연속적 현상이 나타난다. 토사물은 소화기관을 가진 생명체가 자신의 신체를 경유하여 바깥의 물질을 섭

취하고 다시 일부 소화된 물질을 세계로 내보낸 결과이다. 화자는 끊임없이 슬픔을 세계로 내보낸다. 이것은 즐거움을 느끼는 '그대들'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토악질'은 "무의미"하고 "끝없"으며 "자동반복적"이다. 무의미하고 끝없으며 자동반복적인 존재는 인간적이기보다는 기계적이고, 생명보다는 생명 없음에 가깝다. 그러나 시적 자아의 '토악질'은 희망이나 절망, 자포자기와 같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감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자 "수억 년 전부터" 존재했던 "원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분리할 수 없다. 토사물은 채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로 세계에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아는 계속해서 토사물의 물성으로 세계에 감정을 퍼트린다.

시적 자아는 자신을 '희망', '절망', '자포자기', '슬픔'을 계속해서 먹고 그에 따라 무한정 영향을 받는 "수억 년 전부터의 원시적 아메바"라고 표현한다. '아메바'는 많은 이에게 알려진 원생생물의 대표이자 '뇌 없는', '단세포' 생물이라는 점에서 비하적 표현으로 사용된다.[21] 시인 자신이 여기서 '아메바'를 시적 자아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는 토악질과 슬픔을 먹고 배출하는 행위는 아메바라는 뇌 없는 생물이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다음의 것을 생산하는가와 교호한다. 나아가 최승자의 시 전반에서 오물을 뒤집어쓰거나 오물을 직접 생산하는 존재의 양태는 역설적으로 뇌 없는 아메바, 즉 인식과 인과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의 형태를 자유롭게 바꾸는 존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슬픔을 먹고 다시 토하는 "무의미한 끝없는 자동반복적" 행위는 슬픔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다시 토사물의 형태로 세계로 내보내는 반복된 존재의 고통스러운 운동성을 보여준다. 슬픔과 절망, 희망과 자포자기를 양분으로 하는 최승자의 시적 주체는 "즐거움"을 양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과는 근본적으로 함께할 수 없다.

---

21 아메바의 주목해야 할 생물학적 특성은 바로 아메바가 무성생식과 양성생식을 할 수 있으며, 발처럼 생긴 세포막이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운동한다는 것, 그리고 위족으로 먹이를 감싸 세포에 유입시킨 뒤 소화되지 않은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식세포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영임, "〈과학〉아메바, 알고보니 유성생식의 원조", 연합뉴스, 2011.03.24. (열람일자 2025.03.13.))

최승자의 시에서 오물은 존재의 퇴락한 모습을 느끼게 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오물이 부정성에 대한 비유로 종결되지 않고 시 속에서 대상에게 모종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오물은 확산하면서 대상을 더럽힌다. 오물은 사체와 배설물로 세계에 기여하며 삶과 연결되는 존재 방식을 나타낸다. 최승자의 시에서 존재는 오염의 방식으로 세계에 스며드는데, 이로 인해 폐기된 대상인 것만 같던 존재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처럼 형질을 변형시키며 미세한 단위에서 대상에 끊임없이 접촉하게 된다.

3 병원체적 신체와 감염의 생산성

앞선 시편에서는 오물이 주변을 오염시키듯 세계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자아와 대상이 존재함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오염의 방식과 더불어 최승자의 시에는 감염의 방식으로 타자와 만나고자 하는 시적 자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감염은 외부에 있던 병원성 미생물이 생물의 조직에 붙어 정착하고 증식하는 것으로, 신체에 여러 증세를 일으키기도 하고 일으키지 않기도 한다. 최승자의 시적 자아는 생체의 분비물이나 병원체가 되어 타자에게 간섭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아는 타자에게 직접 신체를 접촉하려 하거나 편지와 같은 메시지의 형태로 의미를 전달하려 하기보다는 균, 피, 세포, 병(병원체) 등이 되어서 타자에게 닿고자 한다.

흐르는 물처럼
네게로 가리.
물에 풀리는 알콜처럼
알콜에 엉기는 니코틴처럼
니코틴에 달라붙는 카페인처럼
네게로 가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매독 균처럼
삶을 거머잡는 죽음처럼.
-「네게로」(『이 시대의 사랑』) 전문

이 시의 화자는 “네게로 가리”라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다. ‘네게로’ 향하는 자아의 모습을 ‘처럼’을 사용하여 직유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타자인 ‘네게로’ 자아가 향하는 모습은 “물에 풀리는 알콜”, “알콜에 엉기는 니코틴”, “니코틴에 달라붙는 카페인”,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매독 균”, “삶을 거머잡는 죽음”과 같다. 알콜과 니코틴, 카페인, 매독 균, 삶과 죽음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형태로 타자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황선희는 「네게로」의 소재들이 확산성을 지니는 것들이라는 점을 포착한다.[22] 알콜과 니코틴, 카페인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커피를 마시는 화자의 현실적 생활을 떠올리게 한다. 연기와 물, 점액질은 모두 흘러서 확산하는 물질이다. 매독균이 병을 퍼트리는 것처럼 최승자의 시적 자아는 감염의 방식으로 타자에게 향하고 존재하는 것이다.

최승자의 시에서 침윤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과 미생물의 층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대상이 타자에게 닿고 있음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인과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에서 “비유가 아니라 주먹”[23]이라는 시 구절이 지시하듯, 최승자의 시에서 균과 화학 물질은 직접적으로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서 유물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해러웨이는 반려견의 사례를 들어 개가 자신의 세포를 식민화하고 있으며 DNA 검사를 해 보면 둘 사이에 ‘감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한다.[24] 인간과 자연은 공생발생적인 관계[25]를 이루고 환경은 무생물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필요와 반복적 행위[26]를 가졌다. 자연은 눈에 보이는 행위성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횡단하는 신체성으로 세포 층위에서까지 상대방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삼십 세」(『이 시대의 사랑』)에서 화자는 “내 꿈은 말이야, 위장에서 암세포가 싹트고/장가가는 거야, 간장에서 독이 반짝 눈뜬다”라고 이야기한다. 암세포

22 황선희, 앞의 논문, 67쪽.
23 최승자,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즐거운 일기』, 문학과지성사, 1984, 33쪽.
24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역, 「반려종 선언」,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115쪽.
25 위의 책, 115-119쪽.
26 스테이시 앨러이모, 윤준·김종갑 역,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그린비, 2018, 19-20쪽.

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증식하며, 기저막, 혈관, 2차 장기로 침윤하면서 발육한다는 특성이 있다. 화자는 죽어서 삶을 종결시키고 싶어 하는 욕망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생존의 방식 자체가 병과 독과 같은 병원체와 밀접한 것임을 보여준다.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배설하고 분비하고 서로를 감염시키듯 간섭하며 아프거나 병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아침에는, 이 세계가
치유할 수 없이 깊이 병들어 있다는 생각.

또 어떤 아침에는, 내가 이 세계와
화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병들어 있다는 생각.

내가 나를 버리고
손 발, 다리 팔, 모두 버리고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숨죽일 때
속절없이 다가오는 한 풍경.

속절없이 한 여자가 보리를 찧고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보리를 찧고, 그 힘으로 지구가 돌고 …….

시간의 사막 한 가운데서
죽음이 홀로 나를 꿈꾸고 있다.
(내가 나를 모독한 것일까,
이십 세기가 나를 모독한 것일까.)
-「어떤 아침에는」(『기억의 집』) 전문

최승자의 시에서 존재는 오염된 물질이나 생리적 물질의 형태로 타자에게 접근

하고 최종적으로는 세계의 일부가 되는 침윤적인 형태를 보인다. 자아라는 균과 접촉한 타자는 심하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병에 걸린 줄도 모를 수도 있고,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히 지나칠지도 모른다. 화자는 균과 병의 형태로 부지불식간에 번지고 스며드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상상한다.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계와 자아가 '병'이라는 것으로 깊이 관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화자는 "어떤 아침에" 일어나 하는 생각을 두 개의 연에서 진술한다. 어떤 날에는 "이 세계가 치유할 수 없이 깊이 병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다가도, 다른 날에는 "내가 이 세계와 화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병들어 있다"라고 생각한다. 병의 주체가 세계인지 자아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다. 세계와 자아가 병이라는 것을 항상 서로 나누고 그것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나'는 "손 발, 다리 팔"을 버리고 숨죽이며 죽음에 가장 근접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떤 풍경을 본다. 한 여자가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보리를 찧고 그 힘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사실이 다가오는 것이다. 주체는 죽음에 가장 근접했을 때 세계를 떠받치는 것이 오직 한 여성의 자동반복적 운동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과 보리를 찧는 여성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 "시간의 사막 한가운데서/죽음이 홀로 나를 꿈꾸고" 있다는 인식은 죽음의 무한 반복적인 시간성과 세계의 지난하고 반복되는 운동을 보여준다.

1983년 작성한 산문에서 최승자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실제의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에 대한 관념을 수정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죽음과 관능은 어쩌면 서로 떨어진 독립적인 게 아니고 한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며, "파괴의 쾌락"을 자신이 노력해서 "생산의 쾌락"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낙관론"을 믿고 싶다[27]고 이야기하게 된다. 최승자의 시적 자아에게 있어서 오욕과 수치, 죽음과 불결함은 제어하고자 해도 틈입한다. 파괴 이후에 생산이 오고, 낙관적 결말로 마무리될 결말을 꿈꾸는 것은 최승자의 시적 자아에게 가능한 미래는 아니다. 파괴와 생산이 모종의 쾌락을 연계로 삼아 공존하며 반복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죽음과 육체의 삶, 파괴와 생산이 함께 있는 것이 병원체적 신체가 지시하는 바이다.

27 최승자, 「죽음에 대하여」,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앞의 책, 55쪽.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흰 똥을 갈기고
죽어 삼일간을 떠돌던 한 여자의 시체가
해양 경비대 경비정에 걸렸다.
여자의 자궁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었다.
(오염된 바다)
열려진 자궁으로부터 병약하고 창백한 아이들이
바다의 햇빛이 눈이 부셔 비틀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파도의 포말을 타고
오대주 육대양으로 흩어져 갔다.
죽은 여자는 흐물흐물한 빈 껍데기로 남아
비닐처럼 떠돌고 있었다.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져 간 아이들은
남아연방의 피터마리츠버그나 오덴달스루스트에서
질긴 거미집을 치고, 비율빈의 정글에서
땅 속에다 알을 까놓고 독일의 베를린이나
파리의 오르샹가나 오스망가에서
야밤을 틈타 매독을 퍼뜨리고 사생아를 낳으면서,
간혹 너무도 길고 지루한 밤에는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언제나 불발의 혁명을.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
(오염된 바다)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즐거운 일기』) 전문

이 시는 바다에 떠 있는 죽은 여성의 시체와 여성의 출산을 겹쳐 놓은 시이다. 죽은 여성의 시체는 자궁이 열린 채로 바다에 떠 있었고, 화자는 그것을 "(오염된 바다)"라고 두 번 부연한다. 그러나 여자의 시체는 거기서 종료된 것이 아니다. 여자의 자궁에서 나온 아이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 여자의 시체는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인 '비닐'처럼 보인다. 주목해야 할 것은 흩어진

아이들이 밤만 되면 “매독을 퍼뜨리고”, “사생아를 낳”고,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이다. 오염의 방식으로 태어나고 퍼져나간 아이들은 또 다른 아이를 낳음은 물론 “매독을 퍼뜨리”게 된다. 이 시에 등장하는 모든 존재가 쓰레기, 오염 물질, 병과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고 존재하며 확산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존재는 병이 생성되고 확산되는 방식으로 세계에 간섭한다.

크리스 쉴링은 죽음과 섹슈얼리티가 연관되게 된 사건으로 에이즈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는 섹슈얼리티와 그 수행이 삶 속에 죽음을 들여오게 되었다는 패러독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28] 성관계가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것, 다시 말해 가장 생성적이고 생명력이 높은 성관계라는 행위가 죽음과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생명력과 죽음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 연결한다. 병과 죽음, 생성이 연결된 존재 인식은 바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매독을 퍼뜨리”는 이유가 된다.

여자는 자신의 신체 안에 수많은 오염적 대상을 들인다. 여자의 시체는 갈매기들이 갈긴 “흰 똥”이 되었다가, “창백한 아이들”이 되었다가, “파도의 포말”도 되고, “빈 껍데기”가 되었다가,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비닐이 된다. 여기서 파생된 아이들은 세계 각처에서 거미집, 알, 매독균으로 살아간다. 신체에 많은 오염물과 감염체를 집어넣으면서 세계를 더럽게 만드는 것, 즉 같은 병원체를 지니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혁명은 가시적이지 않으며, 겉으로는 버려지고 병들어 죽은 것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층위에서 실패를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바다는 결국 여자의 몸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오염된 바다)”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승자의 시에는 생체의 분비물, 병원체와 같은 감염 물질이 등장한다. 감염 물질은 적극적으로 타자에게 간섭하면서 마치 병이 번지듯 타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변화시킨다. 이것은 상대방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주체가 근본적으로 서로에게 침윤하면서 끊임없이 연결을 만들어 내는 존재의 기본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28 크리스 쉴링, 임인숙 역, 『몸의 사회학』, 나남, 1997, 308쪽.

4 세포 단위의 재생산과 여성적 신체의 증식

최승자는 1999년 발표한『연인들』에서 자신 그리고 자신의 시가 "다른 한 출발점"[29]을 맞이하였다고 진술한다. 죽음이나 고통에 관한 생각이 변화하였다고 말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고통이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시인 자신이 기술하는 것과 다르게 최승자의 1990년대 시는 언제나 1980년대의 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광호는 1993년『내 무덤 푸르고』의 해설에서 초기시의 "격렬한 충격과 기습적인 감동"[30]이 퇴색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후 시인이 10년 정도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 시기 최승자의 시는 적극적인 독해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정끝별은 이 시기의 시를 1990년대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개인적 생활의 변화 등과 더불어 개인의 내면과 반문명적 신비로 침잠하게 된 것이라 평가한다.[31] 실제로 최승자는 2010년의 산문에서 신비주의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다고 밝힌다.[32] 시인이 일시적으로 심취했던 사고 체계가 신비주의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존재성은 그것이 신비의 형태로 표출되든 부정의 형태로 표출되든 최승자의 시에 언제나 존재했다는 관점에서 시를 다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시에서 최승자가 보여주는 세계와 태도는 문제의식이 둔화되었

29 최승자,『연인들』, 문학동네, 1999, 83쪽.

30 이광호,「세기말의 비망록」, 최승자,『연인들』해설, 문학과지성사, 1993, 82쪽.

31 정끝별,「최승자 시의 여성 말년 양식」,『한국시학연구』제79호, 한국시학회, 2024, 277쪽.

32 "내가 몇 가지 신비 체계를 공부한 것은 발병(1998년, 시집『연인들』을 펴내던 과정 중) 5년 전부터였다. 몇 가지 체계를 기웃거려보면서(그것도 학자 머리가 아니라서 시인 머리로서 직감이 더 많이 이용되는 공부였다) 그 속에서 놀이를 하고 더 나아가 그 체계들 사이의 연관성을 캐어보는 유희에 빠져들었다. (…) 내가 조금 끈질기게 해본 것은 동서 체계들의 연관성이었는데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으나 그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져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일 정도였다. 그 점은 아마도 동양 체계들과 서양 체계들 사이에 많은 층위적 단절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그 점 때문에 더 지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친 심신을 위해서 'letting go'를 할 수밖에 없었다." (최승자,「최근의 한 10여 년」,『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앞의 책, 172-176쪽.)

거나 신비 세계로 완전히 이행한 결과이기보다는 시인의 근본적인 존재론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전제로서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오물과 병, 죽음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경유하며 확장되었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 이 장의 목표이다. 1990년대에 최승자가 발표한 시편을 위주로 오물의 상상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내 무덤, 푸르고
푸르러져
푸르름 속에 함몰되어
아득히 그 흔적조차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개울들 늘 이쁜 목소리로 가득하고
길들 모두 명상의 침묵으로 가득하리니
그때 비로소
삶 속의 죽음의 길 혹은 죽음 속의 삶의 길
새로 하나 트이지 않겠는가.
-「未忘 혹은 備忘 8」(『내 무덤, 푸르고』) 전문

「未忘 혹은 備忘 8」에서 '나'의 '무덤'은 "푸르름 속에 함몰되어/아득히 그 흔적조차 없어졌"다고 한다. 무덤이 시간이 흘러 풀이나 숲속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된 것이다. 주체는 이어서 그 이후의 세계를 전망한다. "그때 비로소/길들 모두 명상의 침묵으로 가득"할 것이고, "삶 속의 죽음의 길 혹은 죽음 속의 삶의 길/새로 하나 트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죽은 몸을 묻은 무덤이 자연 속에서 소화되고, 몸은 "삶 속의 죽음" 또는 "죽음 속의 삶"이라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무덤을 푸르게 덮은 식물과 앞의 시편에서 등장했던 똥과 시체, 토사물 같은 오물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슷한 존재 방식을 공유한다. 「未忘 혹은 備忘 8」에서 죽은 몸이 묻힌 무덤은 땅속에서 모든 존재와 얽히면서 새로운 생성에 관여하고 파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삶은 죽음 속의 삶이자 삶 속의 죽음이 될 수 있다. 신체의 형태를 분해하

거나 바꾸며 자기 신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른 신체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침윤의 방식으로 타자에게 퍼진다는 점에서 푸르른 풀과 더러운 오물과 균은 침윤적 특성을 지닌다.

대상은 죽었음에도 무덤의 풀이 푸르러져 그 풀이 바깥으로 계속해서 퍼져 나가는 것과 죽은 여자의 신체에서 매독균이 퍼져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일은 확산성의 측면에서 연결된다. 물질이 닿는 모든 대상에게 무차별적으로 침투하는 생명의 능력이 최승자의 시적 자아가 보여주는 침윤적 특성이다. '무덤'이 "이쁜 목소리"나 "죽음 속의 삶의 길"이 되고 매독균이 혁명이 되는 생산력이 최승자가 보여주는 여성성이다.

노량진 어느 거리 그릇 세일 가게
쇼윈도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
"그릇 똥값"

순간 충격적으로, 황금색으로
활짝 피어나는 그림 하나.
신성한 밥그릇 안에 소중하게 담겨 있는
김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똥 무더기 하나,
아니 쇼윈도 안 모든 그릇들 안에 담겨
폴폴 향기로운 김을 피워올리는 똥덩이들.
그 황금색의 환한 충격.

입과 항문이 한 코드로 연결되듯
밥과 똥이 한 에너지의 다른 형태들이니,
밥그릇에 똥을 퍼담은들,
밥그릇에 똥을 눈들 어떠랴,
산다는 것은 결국 싼다는 것인데
-「"그릇 똥값"」(『연인들』) 전문

1990년대 이후 최승자 시의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릇 똥값”」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싼다는 것”이라는 발화는 최승자의 시가 이전부터 내장하고 있던 근본 질문을 관통한다. 이 시의 화자는 그릇 가게에서 그릇이 아주 값싸다는 의미로 ‘똥값’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고 삶에 관한 사유를 펼친다. 모든 밥그릇에 똥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쓸모 있고 중요해 보이는 ‘밥’과 쓸모없이 버려진 것 같은 ‘똥’을 등치시킨다.

여기서 “밥과 똥이 한 에너지의 다른 형태”라는 중요한 진술이 등장한다. 1980년대의 시편에서 오물이 예시했던 것처럼 생성과 폐기는 최승자의 시 세계에서는 동일한 동력이다. 또한 화자는 처음에 하나의 밥그릇에 똥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상상 속에서 펼치다가, 이내 모든 밥그릇에 똥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세포가 분열하며 증식하는 상상력과 연결되며 하나가 이내 여러 개의 비슷한 크기로 증식하는 모습이 이 시에도 나타나 있다. 밥과 똥이 하나의 에너지의 다른 형태라는 진술은 죽음과 삶이 하나로 붙어 있는 무덤의 존재 양태와 겹쳐진다.

무덤들이 있고 그 위로
만월이 교교한 밤,
우리들의 혼인 효모로
한없이 부풀어올랐다
한없이 잦아들다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다시 팽창하는,

月下, 이 빵빵한,
수억년 전 빅뱅 때에 찍혀졌다
수억 광년을 달려와 이제
내 자궁 속에서 부풀어오르며
삼차원의 형상, 아니 영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것,
月下, 이 빵빵한

이 빵덩어리는 도대체 누구의 오븐에서 구워졌던 것일까.

-「月下, 이 빵빵한」(『연인들』) 부분

『연인들』에 수록된 「月下, 이 빵빵한」에서는, 차오른 만월의 형상과 무덤, 구운 빵,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의 몸이 둥그런 모양으로 연결된다. 둥그런 배 속, '월하', 그리고 땅속인 무덤 속의 몸은 '혼'이라는 효모로 "부풀어올랐다 한없이 잦아들다"가 하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 달이나 자연, 시체, 음식, 여성의 몸은 어떤 곳에서 기원했는지를 알 수 없이 섞이며 자궁 속이라는 여성의 몸으로 수렴하게 된다. "흙 인형으로 변했다가/이제 마침내 흙으로 부서져버릴 참"(「연인들 1-빛의 혼인」)인 몸이나, "시간을 뚫고 무한을 향해" 가는 "지하무덤"(「연인들 2-두 마리 새의 화답」) 속의 몸이나, "몸 속의 몸", "빛의 몸"(「연인들 3-몸 속의 몸」)은 같은 맥락에서 퇴비되어 자연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몸들이다.

배설물 속의 미생물이나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스가 외부에 영향을 미치고, 독이나 병이 대상에게 변화를 일으키며 퍼지는 침윤의 상상력은 『연인들』의 시기에 와서 효모와 세포의 상상력으로 발전한다. 제빵이나 양조 등에 사용되기도 하는 효모는 단세포의 진핵미생물로, 대부분의 효모는 또한 체세포분열을 통한 출아의 형태로 딸세포를 생성하면서 증식한다. 제빵 과정에서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의 발효는 미생물이 유기화합물을 분해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되는 일을 말한다. 「月下, 이 빵빵한」에서 둥그런 달, 임신한 여성의 동그란 배, 효모를 통해 부풀어 오르는 빵이 연결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효모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세포분열의 과정을 통해 태아가 되는 생성의 과정이 둘 모두에게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

여성의 몸에서 자라나는 "빵덩어리"이자 "삼차원의 형상" 또는 "영상"은 「겨울에 바다에 갔었다」(『즐거운 일기』)에서 바다에 떠 있는 여자의 자궁이 생성한 '아이들'의 상상력과 다르지 않다. 분열하며 생장하는 생명력의 이미지와 썩고 죽어서 퍼지는 병원체의 이미지는 같은 생성적 에너지를 드러낸다. 엘리자베스 그로스는 몸이 자신을 환경에 개방하고 대상에 통합되면서 스스로 교체되

며 권력과 가능성을 확장한다고 본다.[33] 여성의 신체성은 액체성으로 재현되는데, 이때 액체성은 다른 대상에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병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 한계를 확정할 수 없는 공포 등을 포함한다.[34] 최승자의 시적 자아가 "누구의 오븐에서 구워졌"는지 모르는 빵덩어리를 자궁 속에서 부풀린다는 정황은 타자에게 침윤하는 여성의 신체가 만들어내는 여성적 혁명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액체성을 보이는 몸이 자신이 닿는 어떤 대상에든 침윤하고 병을 일으키거나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펼쳐질 때 혁명의 가능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최승자의 시에서 구더기나 벼룩과 같은 작은 동물들, 곰팡이와 균, 병, 배설물이나 폐기물에 붙은 미생물들 등은 자아의 끝없는 퇴락을 보여주는 미물이거나 폐기된 대상인 것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가장 밑단의 출발점이자 연쇄(chain)의 중요한 참여자이다. 시인이 "헛……이 빈……을 꽉 채운다"(「이 시」, 『연인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인식이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세계를 꽉 채울 정도로 생성되고 증식하는 존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결론

지금까지 최승자의 시에 나타난 오물의 의미와 침윤(浸潤, infiltration)성 존재론을 확인하였다. 침윤이란 스며들어 번진다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이자, 의학적으로는 염증이나 종양 따위가 번져서 인접한 조직이나 세포에 침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승자의 시적 자아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배설물과 폐기물, 균과 병으로 지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자아의 무한한 퇴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논문은 최승자의 시적 자아가 오염과 감염의 방식으로 타자에게 침윤하고 교섭하면서 생리적인 층위에서 생성을 이루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최승자의 시적 자아는 폐기물이나 배설물, 시체나 균 등의 존재를 들어 사랑

33 엘리자베스 그로스, 임옥희·채세진 역, 『몸 페미니즘을 향해: 무한히 변화하는 몸』, 꿈꾼문고, 2019, 431쪽.

34 위의 책, 466-467쪽.

이 주는 상처, 세계를 살아오면서 겪는 슬픔을 말하곤 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오물 존재들을 삶이 이미 종결되었거나 버려진 비존재로 처리해 왔으나, 오물 역시 실제로 존재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

배설물과 폐기물, 병은 염증 같은 것이 번지면서 인접한 조직에 침입하듯 하는 침윤의 방식으로 외부 대상과 교섭하고 다른 것을 생성시킨다. 이때 최승자의 존재론은 퇴락이 아니라 침윤하면서 생성하는 존재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승자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흙을 생산하므로"(「희망의 감옥」, 『기억의 집』)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해러웨이가 제안하는 인간성보다 더 큰 범주의 '부식토성'을 예시하는 것이자 시적 자아가 가진 존재의 특성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980년대 시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던 오물의 상상력은 나아가 효모와 세포분열의 상상력으로 이어지며 생성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연인들』 이후에 최승자가 작품을 통해 쓸쓸함과 '텅 빈' 심상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눈에 보이거나 소리로 들리는, 즉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틀 안에서 지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인식될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비어 있다'라는 풍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병원체의 미생물이 보이지는 않아도 타자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미생물의 층위에서는 타자와 주체가 계속해서 뒤섞이고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최승자의 침윤성 존재론은 초기의 단계부터 대상에 접하기 위한 것이자 교섭적인 종류의 것이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기술된 최승자의 죽음 인식은 관능이나 우울, 죽음 충동과 생의 의지가 한 면에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물이 생산하는 감각을 관능으로 이해했을 때 그것은 여성적 삶을 간과하는 것이 되고, 우울이나 죽음 충동으로 이해했을 때는 최승자가 드러내는 생의 의지라는 맥락을 놓치게 된다. 한편 그것을 죽음으로 길어 올리는 삶의 의지나 전통적 생의 순환으로 이해했을 때는 최승자가 오물을 통해 생산하는 강렬한 감정의 파동을 기술하지 못하게 된다.

최승자의 시는 1980년대라는 시대적 절망에 많은 초점이 놓여 있지만, 1980년대에 제출된 시인의 시는 1970년대부터 청년기를 보내온 시인의 문제의

식이자 개인적 여정과도 맞닿아 있다. 최승자의 시는 그 모든 여정이 한 면에 놓인 여성성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물을 물고 있는 듯한 삶과 병리적 존재, 죽음의 관능성, 세균-효모의 생성적 존재는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연결된다. 바로 이런 시각이 1990년대까지 제출된 최승자의 시를 이해하는 방향을 제공하면서 최승자 시에 대한 통합적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최승자,『이 시대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81.

_____,『즐거운 일기』, 문학과지성사, 1984.

_____,『기억의 집』, 문학과지성사, 1989.

_____,『내 무덤 푸르고』, 문학과지성사, 1993.

_____,『연인들』, 문학동네, 1999.

단행본

정과리,『1980년대의 북극꽃들아, 뿔고둥을 불어라』, 문학과지성사, 2014, 236-237쪽.

조연정,『여성 시학 1980~1990』, 문학과지성사, 2021, 157-175쪽.

최승자,『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난다, 2021, 20-24쪽, 55쪽, 172-176쪽.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트러블과 함께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마농지, 2020, 13-14쪽, 60쪽, 97쪽, 115쪽.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역,『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115-119쪽.

스테이시 앨러이모, 윤준·김종갑 역,『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그린비, 2018, 19-20쪽.

엘리자베스 그로스, 임옥희·채세진 역,『몸 페미니즘을 향해: 무한히 변화하는 몸』, 꿈꾼문고, 2019, 431쪽, 466-467쪽.

제인 베넷, 문성재 역,『생동하는 물질』, 현실문화, 2020, 41-46쪽.

크리스 쉴링, 임인숙 역,『몸의 사회학』, 나남, 1997, 308쪽.

논문
길혜민,「1980년대 여성시에 나타난 죽음 정동 연구-고정희, 김승희, 최승자의 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김건형,「최승자 시에 나타난 비천한 주체의 변모 양상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18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51-76쪽.
박소영,「최승자 시의 멜랑콜리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문혜연,「최승자 초기 시의 죽음의식 연구-『이 시대의 사랑』을 중심으로」,『국제언어문학』제57호, 국제언어문학회, 2024, 141-164쪽.
성현아·이경수,「최승자 시에 나타난 필수양가성 연구」,『한국시학연구』제65호, 한국시학회, 2021, 131-157쪽.
신영연,「최승자 시의 실존의식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엄경희,「여성시에 대한 기대지평의 전환-최승자 시를 중심으로」,『이화어문논집』제13집, 이화어문학회, 1994, 567-591쪽.
유준,「사랑의 형이상학에 관한 연구-오정희와 최승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윤초롬,「최승자 초기시에 나타난 물 이미지 연구-멜랑콜리적 주체와 아브젝트적 상상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이영희,「여성의 멜랑콜리 시 의식이 구현하는 언술구조 연구-김승희, 최승자,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혜순,「1980년대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멜랑콜리의 정치성 연구-이성복, 김혜순, 최승자의 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조성아,「최승자 시세계의 시간의식 연구-기억과 죽음 이미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정끝별,「최승자 시의 여성 말년 양식」,『한국시학연구』제79호, 한국시학회, 2024, 273-306쪽.
정슬아,「여성시와 여성혐오(misogyny)-최승자와 이연주를 중심으로」,『돈암어문학』제42집, 돈암어문학회, 2022, 219-247쪽.
_____,「최승자 시에 나타난 주체의 변모 양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허주영,「생물학적 성별에서 벗어나기」,『상허학보』 제55집, 상허학회, 2019, 221-261쪽.
황선희,「포스트휴먼 시대 비인간 담론으로 다시 읽는 여성시-김승희·김혜순·최승자의 시를 중심으로」,『한국시학연구』, 제77호, 한국시학회, 2024, 55-104쪽.
_____,「한국 현대 여성시의 아이러니 연구-김승희, 김혜순, 최승자의 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기타
이영임, "〈과학〉아메바, 알고보니 유성생식의 원조", 연합뉴스, 2011.03.24. (열람일자 2025.03.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974967?sid=105)

Abstract

The Meaning of Filth and Infiltrative Ontology in Choi, Seung-Ja's Poetry

Yoo, Gaeun·Lee, Kyungsoo
Chung-Ang University·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rereads the meaning of 'filth' and the ontology of the poetic subject in Choi-Seung-ja's poetry. Choi, Seung-ja describes the poetic self covered in filth, such as garbage, feces, and pathogens, or refers to herself as filth itself. Filth is not only a way to show the endless negativity and decadence in Choi, Seung-ja's poetry, but also an object that performs the ontology which engages with in a way of infiltration.

Filth is not a metaphor for the life of the poetic self, but something that invisibly spreads to others. Garbage or excrement can infiltrate the other in a way that contaminates the object, and pathogens can infiltrate the other in a way that infects the other and makes them sick. This paper is arguing that filth itself exists in Choi, Seung-ja's poetry as a way of connection and creation.

This paper seeks to reorganize the way Choi-Seung-ja's poetry of the 1980s and 1990s comprehended. Compared to her widely influential poems of the 1980s, her poems of the 1990s have been criticized as having less poetic tension or as the result of

a shift to the mystical realm. If filth is seen as a diffuse and relational entity from the beginning, the circular perception of life and death in the poems of the 1990s can also be read as an infiltrative ontology.

Key words: Choi, Seung-ja, Women's poetry, filth, being, Ontology, New Materialism, Donna Haraway, Life, Infiltration

논문제출 / 2025.03.15.
논문접수 / 2025.03.16.
게재확정 / 2025.04.04.